

'93년도 정기 대의원 총회

건협, '94년도 총 예산 192억여원

건강관리사업 계획은 162만여명 확정

한국건강관리협회는 '93년도 정기 대의원총회를 지난 11월 26일 가나부페에서 개최하고, '9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 예산 규모를 192억여원으로 심의·확정했다.

또, 이날 총회에서는 '94년도 건강관리사업계획 162만여명(검사 대상별), 기생충관리사업계획 278만여명을 비롯하여 보건계몽 사업계획, 조사연구사업 계획 등을 심의·통과시켰다.

한편 최진학 건협 회장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지난 한해동안 우리 건협은 제5차 전국 장내기생충 감염률 실태조사의 성공적 마무리, 각종 계몽활동 전

개, 학술 연구, 건물 신증축을 비롯해 위암 이동 검진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많은 사업을 확대·발전시키는데 최선을 다해왔다』고 말하면서, 『'94년도에는 특히 국민의 보건 의식 계몽과 사회적 소외계층에 대한 검진 서비스, 과학적 학술연구에 더욱 주력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또, 송수복 부산의대 교수, 유재봉 서울시 마포구 보건소 건강관리계장을 비롯해 국민건강증진 및 건강관리사업에 많은 기여를 한 유관기관 인사에 대한 회장 감사장 수여도 있었다.

이준상교수, 기생충학회장으로 선출

제35회 학회총회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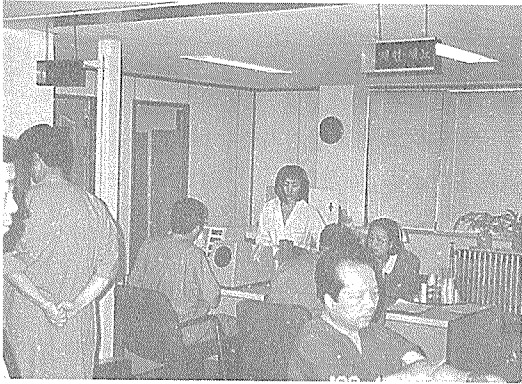
대회가 1993. 10월 28일부터 29일까지 전북의대 학생회관에서 개최되어 새로운 임원진을 구성했다.

제20대 학회장에는 이준상교수(고려의대), 부회장에는 강신영교수(중앙의대), 감사에는 채종일교수(서울의대)와 신대환교수(충남의대)가 선출되었다.

대한기생충학회 제35회 총회 및 학술

충남 도의회 · 시군의회 의원 건강진단

건협 대전 · 충남지부서 총 276명 종합검진



한국건강관리협회 대전 · 충남지부가 충남 도의회 및 시군의회 의원에 대한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 10월 20일부터 21일까지 충남도의회 김대희 의장을 비롯한 의원 54명에 대한 종합건강검진을 이미 실시한 건협 대전 · 충남지부는 11월 11일부터 12월 20일까지 28일간 충남 시 · 군의회 의원 222명에 대한 종합 건강검진을 실시한다.

12월 건강관리 공개강좌

한국건강관리협회 각 시도지부는 11월 건강관리 공개강좌를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자세한사항은 해당지부로 문의하면 된다.

지 부	일 시	장 소	주 제	강 사
서울지부	9일(14 : 00)	용산구민회관	뇌졸중	김범생(가톨릭의대)
	16일(14 : 00)	용산구민회관	류마티스	우영균()
부산지부	23일(14 : 00)	지부 홍보관	심장질환	신영우(부산의대)
대구지부	21일(14 : 00)	지부 홍보관	갑상선질환	김인호(경북의대)
경기지부	28일(14 : 00)	지부 홍보관	빈혈	김정선(지부 관리의사)
제주지부	16일(14 : 00)	제주시 학생회관	부부생활과 정신건강	정동철(정동철신경정신과의원장)

지역주민 보건의식 향상에 기여 기대

건협, '93 보건교육담당자 교육 실시



한국건강관리협회는 '93년도 보건교육담당자교육을 지난 11월 17일부터 19일까지 수안보 상록회관에서 가졌다.

일선 보건교육담당자의 자질 향상을 통하여 지역주민 보건의식 향상에 기여토록 하기 위해 개최된 이번 교육에는 시도·시군구 보건소 보건교육담당, 읍면동 보건요원을 비롯해 건협 지부 홍보과장, 보사부 관계관 등 210명이 참석했다.

이번 교육에서는 앞으로의 보건의료 및 보건교육의 기본 방향, 미래지향적인 보건교육을 위해 보건교육 담당자로서 가져야 할 철학적 자세, 지역사회 주부를 위한 보건교육 프로그램, 국가의 국민건강증진 정책 방향 등 이론과 실제

를 겸한 다양한 강의가 있었으며, 특히 이번 교육에서는 일선 보건교육 사례를 경기도, 충청북도, 경상남도에서 각각 발표를 하기도 했다.

교육 첫날 건협 최진학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질병 예방을 통한 건강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일선 보건교육 담당자들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지역주민 보건의식 향상을 위해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 교육의 주제 및 강사는 다음과 같다.

- 철학이 있는 보건관리와 우리의 자세(연세의대 유승흠 교수)
- 우리나라 보건의료 현실의 문제점과 개선책(서울대 보건대학원 문옥륜 교수)
- 지역사회 주부를 위한 보건교육 프로그램(이화여대 김초강 교수)
- 국민 건강증진 시책 방향(보사부 한충길 보건교육과장)
- 지역주민 보건의식 향상을 위한 일선 보건관리자의 역할(연세의대 김명호 명예교수)